이다. 실사구시實事求是를 모토로 실용・실천을 도덕으로 하는 실학의 가치는 자아의 발견에 토대한 세계문명에로의 개방과 소통에 있다고 하겠다.

그러면 실학적 사유와 논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그것은 르네상스의 기초가 그러하듯이 현실을 매개로 한 고전의 재해석에 있었다. 현실적 문제의식을 가진 유교 경전의 재해석, 이를 통한 사유와 논리의 전개가 그 방법이었다. 따라서 실학은 경학經學과 경세학經世學이 그 주를 이루고, 궁극적으로는 실용의 과학을 지향하는 학문이었다. 또한 실학은 현실・경험의 지식을 추구하다 보니 지식의 생활화・대중화의 길로 발전하여 학문의 백과사전적 종합과 분화가 동시에 추구되었다. 이런 점에서 우리 학술사상 근대의 분기점적인 성격을 지니기도 한다. 그 학적 관심은 시기와 유파에 따라 또한 개인의 처지와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중농적・제도개혁적 경세치용파經世致用派와 중상적・도시상공업적 이용후생파利用厚生派, 학문 태도와 방법으로서의 실사구시파로 나뉜다.

실학인물총서를 내면서

실학의 비조鼻祖로 변법적 개혁론을 전개한 반계 유형원柳馨遠, 실학의 종장宗匠이자 경세치용파의 학맥을 연 성호 이익李瀷, 성호를 계승하여 우리 역사학을 정초定礎한 순암 안정복安鼎福, 이용후생의 측면에서 상업과 유통, 과학기술의 혁신, 북학北學의 수용 등을 주장했던 연암 박지원朴趾源과 초정 박제가朴齊家, 전통적인 직방職方의 세계에서 탈피하여 땅이 원형의 세계임을 인식하고 지구설과 자전설自轉說을 주장했던 대곡 김석문金錫文과 담헌 홍대용洪大容, 경세치용과 이용후생을 아울러 실학을 회합한 다산 정약용丁若鏞, 학문에서의 실증을 중요하게 여긴 추사 김정희金正喜, 천문학·지리학은 물론 의학에 이르기까지 서양 과학을 폭넓게 수용한 혜강 최한기崔漢綺, 새로운 지도 제작법을 수용하여 우리나라 지도를 정밀하게 완성한 농포 정상기鄭尙驥와 고산자 김정호金正浩, 개국통상과 주체적 외교를 주창하여 최한기와 함께 실학과 근대개화사상에 가교를 놓은 환재 박규수朴珪壽 등은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실학자들이다.

실학박물관에서는 2009년부터 대표적인 실학자들의 생애와 학문, 사상과

인간 형상 등을 널리 알리기 위해 학계의 저명한 연구자들과 함께 실학인물총서의 간행을 기획해왔다. 이 총서는 매년 2~3명의 실학자를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일반인을 위한 교양 독서물이면서도 연구의 성과를 충실히 수용하여 각 실학자들이 자각적 사명을 가지고 평생 연구를 진행했던 창조의 정신과 개혁 정책을 세심하게 살피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민생을 위해 조선후기 사회변혁의 주체로 나아가려고 했던 실학자들의 고뇌에 찬 역정을 깊이 읽고, 새로운 문명을 추구해나가야 하는 우리의 역사적 동력과 경험을 느낄 수 있게 된다면 큰 보람이라 하겠다.

2011년 12월

경기문화재단 실학박물관장 김 시 업

책머리에

현대의 정보화 시대를 새로운 차원으로 진전시키는 데에 공헌한 스티브 잡스Steve Jobs가 2011년 10월 6일 사망한 뉴스를 읽으면서 갑자기 박제가가 그와 닮았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잡스는 "늘 갈망하고 우직하게 살아라(Stay hungry, Stay foolish)"라고 말했는데, 박제가도 잡스처럼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다. 박제가는 늘 새로운 지식을 갈망하였다. 그는 잡스의 애플사 슬로건처럼 다르게 생각하여(Think different), 창의적인 문학 활동을 하고 혁신적인 정책론을 제시하였다. 당시로 볼 때, 그의 발상과 정책론은 어리석을 정도로 무모하였다. 박제가는 정조의 시대가 거의 끝나는 1799년에 올린 상소문에서 "이번에 올리는 말도 지난번 비웃음을 받던 가운데 나온 한, 두 마디에 불과합니다. 또 망발妄發한다는 비난은 본시 스스로 자초하는 바이나, 그밖에 달리 할 말은 없습니다"고 하며 자신의 정책론을 우직하게 또 다시 주장하였다. 잡스는 사후에 인류의 삶을 변화시키고 산업을 재정립한 선각자로 평가받고 있는데, 박제가는 18세기 조선을 부강한 선진 문명국으로 만들어 20세기 초 식민지화를 예방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정책안을 제시하였으나 그 실현을 보지 못하였다. 두 사람은 똑같이 출생의 콤플렉스를 극복하고 역사적 평가를 받았다. 실학은 갈망과 열정과 신념과 도전의 산물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 책은 탁월한 경제사상가일 뿐만 아니라 뛰어난 문장가이기도 한 박제가의 평전이다. 여기서는 박제가의 실학사상을 조명하는 데에 초점을 두므로 경제사상가로서 박제가를 주로 다루며, 그의 혁신적인 문장론에 대해서는 실학

사상에 상통하는 점을 거론하는 데에 그친다.

최근 실학의 독자적 의의를 부정하는 견해도 나오고 있지만, 저자는 실학이 주자성리학의 사상적 한계를 극복해나갔고, 조선의 사회·국가제도·경제를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으로 만드는 정책 방안을 제시한 의의를 가졌다고 생각한다. 실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논란이 많지만, 이 책에서 사용하는 실학은 오늘날 학계의 통설에 따라 주자성리학의 관념성을 극복하여 학문의 실용·실증성을 한 차원 높이고, 공리功利의 경제합리주의에 입각한 정책론을 제시하고 유럽 자연과학도 수용한 조선후기의 새로운 학풍에 국한된다. 조선 건국기에 국가제도를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으로 만드는 이념을 제시한 주자학자들은 실학이라 자처하였는데, 조선후기 실학은 근대적 전환을 준비하는 방안을 제시한 점에서 더욱 소중하다. 저자는 이러한 주장을 이 책을 통하여 보여주고자 한다.

저자는 실학이 근대적 사유가 되기에는 여러 면에서 미흡함을 알고 있으며, 실학이 개선하고자 하던 조선의 현실, 그리고 극복하고자 하던 주자성리학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았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실학은 조선사회에서 생성되었고 주자성리학이란 세련된 사유체계를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가운데 높은 사상적 성취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 실학파 중에서도 선진적인 북학사상은 중국을 열심히 배우는 전통 위에서 새로운 문명기획론으로서 성립하였다. 북학이란 개방적인 자세로 외국의 장점을 적극 흡수하려는 사상이다. 북학사상은 이용후생사상으로도 불리는데, 이용후생의 핵심적 내용은 시장과 기술의 발전

을 도모하여 소비 수준을 향상하는 일이다. 북학을 통해 이용후생을 도모하고, 이용후생사상에 의거하여 북학을 하였던 것이다. 이용후생과 북학의 개념에 대해서는 4장에서 자세히 언급한다. 이용후생학파 중에서도 가장 혁신적인 박제가는 '기적의 선각자'로 평가되기도 하지만, 그는 결코 기적처럼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땅에서 솟아오른 인물이 아니라, 그 시대 성숙해진 문화의 자양분을 누구보다 잘 흡수하여 발전시킨 인물이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조선의 사회와 문화가 18세기 후반에 성숙해졌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잡스에 비견할 만한 인물들을 낳은 것은 조선왕조의 역량을 보여주나, 그들이 세상을 바꾸지 못한 것은 그 한계를 드러낸다. 조선왕조의 문화 역량은 식민지화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 20세기 한국사의 발전을 지원하였다고 자자는 생각한다.

그래서 박제가의 평전을 쓰기 위해서는 그가 살던 시대를 이해해야 했다. 박제가를 이해하는 일은 조선시대 전체를 이해하는 일인지도 모른다. 박제가 개인뿐만 아니라 그가 살았던 시대를 정리하는 일은 저자에게 힘든 과제였지만 고마운 기회였다. 애당초 교양서로 기획된 책인데, 학술서로서도 평가받고 싶은 욕망을 억누르지 못해서, 일반 독자가 이 책을 딱딱하게 느끼지 않을까 걱정된다.

『한국실학연구』 10·11호(2005·2006)에다 「박제가 경제사상의 구조와 성격」이라는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 이 논문이 인연이 되어 박제가의 생애와 사상을 다루는 저서의 집필을 의뢰받게 된 모양이다. 대학원시절에 『북학의

北學議』를 처음 읽어보았는데, 『한국실학연구』 4호(2002)에 실린 「유수원과 박제가의 상업진흥론」을 집필할 때에 느낌이 새로웠고, 「박제가 경제사상의 구조와 성격」을 집필하면서 다시 보니 또 새로웠다. 이번 책을 준비하면서도 새로운 느낌과 감흥을 받을 수 있었다. 갈수록 『북학의』의 탁월함을 더 잘 알게 되었고 박제가의 마음에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다. 이 책을 준비하면서 지난번의 논문이 크게 미흡함을 알게 되었다. 이 책으로 그 미흡함을 메우게 되어 다행이다.

은사이신 안병직 선생님이 실학박물관 관장으로 계실 때, 저자는 실학자 평전의 제1차 집필진에 합류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2011년 1학기 고려대의 한국경제사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이 글 초고의 비평문을 쓰게 하였다. 학생들이 열심히 논평해준 덕분에 오자와 비문의 수정뿐만 아니라 내용도 수정, 보완할 수 있었다. 지도 그림은 조영준 교수와 김종혁 교수의 도움을 받았다. 조선후기 문학을 연구하는 한영규 선생의 세심한 논평은 이 글의 개선에 이바지하였다. 안대회 선생은 저자의 박제가에 대한 여러 궁금증을 풀어주셨다. 실학박물관의 김성환 팀장은 책의 편찬을 세심하게 지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를 꼼꼼하게 읽어 오자를 지적해주셨다. 이 책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조선시대 남자의 단점들을 계승한 저자와 30년간 동고동락同苦同樂하면서 평안하게 가정을 꾸려준 아내 이수자에게 이 책을 바친다.

차례

04 발간사

08 책머리에

16 1장 | 박제가는 어떤 인물인가

1. 조선의 근대화를 준비하는 경제개혁안을 제시하다
2. 자기 소개에 드러난 박제가의 개성
3. 박제가에 대한 인물평

28 2장 | 박제가의 생애

1. 서자로 태어나다
2. 소년기의 추억과 가족
3. 교유 인물과 북학파北學派
4. 네 차례의 연행燕行
5. 『북학의北學議』를 저술하다
6. 규장각 검서관檢書官 등의 관직생활
7. 경세책經世策을 건의하다
8. 문체반정文體反正과 유배流配

98 3장 | 박제가의 사상과 정책론의 성립 배경

1. 18세기 조선의 성취와 그 한계
2. 외국 선진 문명의 충격

112 4장 | 박제가의 사상

1. 경제를 중시하는 이용후생利用厚生 사상
2. 근대적 대외 학습 자세를 제시한 북학北學 사상
3. 부강한 문명국文明國의 지향
4. 실사實事를 중시하는 개방적인 학문 방법론

차례

162 5장 | 박제가의 경제정책론

1. 부국책富國策의 체계로서의 경제정책론
2. 개국통상론開國通商論
3. 국내시장 육성론
4. 기술발전론
5. 신분제 개혁론

184 6장 | 박제가 경제사상과 정책론의 평가

1. 부국을 도모하는 최상의 정책론
2. 박제가 경제사상의 비교사적 좌표

202 7장 | 뜻을 펼치지 못한 경세의 포부

1. 정책으로 수용되기에는 지나치게 혁신적인 사상
2. 정조와 박제가
3. 시대적 한계

226 8장 | 박제가 사상의 후대 영향과 현대적 의의

1. 후대 영향과 재평가
2. 현재적 의의

246 연보年譜

252 박제가에 관한 주요 연구문헌 목록

255 찾아보기